

# Endless Drawing

April, 2018 | by editorial

## Brutal Skins

장파 | 3.14-4.18  
두산갤러리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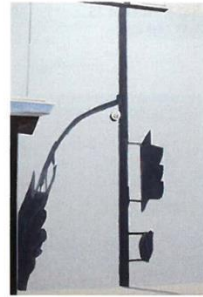


장파, 《Fluid Neon》

2017년 두산갤러리 뉴욕에서의 장파 개인전 《X-Gurlesque》에서 선보였던 《Fluid Neon》(2016), 《Brutal Skins》 시리즈의 2017년 작을 포함한 신작이 두산갤러리 서울에서 소개된다. 장파 작가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 안의 관찰자로서, 또한 여성으로서 개인에 대한 탐구와 이해를 넘어 자아와 타자의 구분에 대한 질문과 태도를 회화, 영상 및 설치로 실험해왔다. 그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변형된 여성의 신체는 남성 중심적 시각과 사사에서 소외된 여성의 억압된 감각을 자극적인 색과 역동적인 붓터치로 분출하며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여성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낸다. 액체적 질감과 자극적인 형광 색감의 '그로테스크'한 아름다움을 지닌 여성의 몸으로 표현함으로써 욕망의 대상과 주체로서 여성에 대한 복합적인 시선을 담았다.

## A Glowing Day

쿤 반 덴 브룩 | 3.20-4.27  
갤러리 바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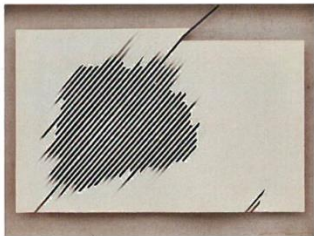


쿤 반 덴 브룩, 《L.A. Music Center》

구상과 추상의 경계를 넘나들며 국제적으로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 벨기에 작가 쿤 반 덴 브룩의 신작이 갤러리 바톤에서 공개된다. 건축학을 공부한 그는 주로 도시 변두리에 산재되어 있는 도로 표지판, 주차장, 보도의 그리드, 아스팔트 균열, 그림자, 인터체인지, 교각, 도로 경계선 등의 기하학적 구조를 탐구한다. 어딘가 분명히 존재하는 장면이지만 인간의 모습이 철저히 배제된 화면에서 선과 면, 음영만이 부각되어 있다. 이와 같은 구성법으로 인해 작품은 생경하고 이국적인 풍경으로 다가온다. 특히 텅 비어있는 배경을 가로지르는 강렬한 원색의 대각선은 원래의 풍경과는 전혀 다른 시각적 효과를 전해준다. 실제 풍경과 운우 사이를 자유로이 오가는 쿤 반 덴 브룩이 한국에서 3년 만에 개최하는 이번 개인전은 동시대 유럽회화의 현주소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 Endless Drawing

김용익 | 3.20-4.22  
국제갤러리



김용익, 《선긋》

198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40여 년간 작가 작업의 근간을 이룬 김용익 작가의 다양한 드로잉 작업 40여 점이 《Endless Drawing》에서 처음으로 소개된다. 김용익 작가는 1970년대 작업 초기부터 순수미술이라는 범주 안에서 모더니즘적 관행의 지배적 특성에 균열을 내는 작업을 이어왔다. 즉 외부적으로 열려 있고 완결되지 않은 상태의 드로잉 개념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번 전시는 김용익 작가의 작업 기저에 흐르는 '회화의 타자로서의 드로잉'에 대한 정의를 재고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 아시아를 사랑한 매그넘 작가

구보타 히로지 | 3.10-4.22  
학교재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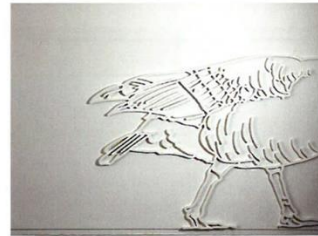


구보타 히로지, 《861》

다큐멘터리 사진작가인 구보타 히로지는 기록자이자 관찰자로서 아시아 대륙의 곳곳을 탐험한 순간들을 카메라에 담았다. 세계적 사진가 그룹인 '매그넘(Magnum)'의 대표적인 사진작가이기도 한 그의 작품 109점을 학교재갤러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1965년 첫 취재부터 2003년 고국 촬영까지, 구보타 히로지의 40여 년에 걸친 방대한 사진 작업이 회고전 형식으로 전시된다. 두 차례 국내에 작품이 소개된 적은 있었지만, 작업 활동을 아우르는 대규모의 회고전은 이번이 처음이다.

## 기러기 GIROGI

김민애 | 3.16-5.13  
아틀리에 에르메스



김민애, 《기러기(GIROGI)》

김민애 작가는 건축 구조물의 일부를 세심하게 본 뜬 후 변형을 가해 기능을 박탈한 오브제를 원래의 구조물처럼 전시장에 배치하는 점근법을 취해 그 결과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이번 전시에서 《기러기(GIROGI)》는 밝은 조명이 형상을 드러내기는커녕 오히려 알아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눈앞에서 하얗게 지워버리는 역설을 일운킨다. 김민애 작가는 텅 빈 전시장으로, "볼 것이 별로 없는" 전시장으로 화답한다.